

| 이슈페이퍼 2022-01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3.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 참고문헌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진단 및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권미경 연구위원

◆◆ 요약 ◆◆

- 한국의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1년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분담과 인식을 포함하여 가정 내 육아 문화는 어떠한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육아존중문화로,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와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부모들은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가치를 두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부부간 역할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평등한 견해를 지니며, 현재의 역할분담에도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양육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양육에 대한 철학/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등이 주된 이유이며,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를 가장 희망함.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인식이 실현 가능한 제도적 지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아버지교육을 포함하는 양육역량 강화 기회확대,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과 더불어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가 필요함을 제언함.

1

배경 및 문제점

- 한국의 육아와 관련된 문화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저출산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고는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와 SBS,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동으로 수행한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연구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 소셜미디어(뉴스,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에 육아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웹 크롤링하여 분석한 결과¹⁾ 부정적 표현이 긍정적 표현 보다 월등히 많았고, 특히 육아관련 단어 중 ‘여자’, ‘독박육아’, ‘양육비’, ‘혼자’, ‘남자’ 등의 빈도가 높았음.
- 최근 기사검색과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 내 육아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육아문화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 ◆ 2021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모의 역할 분담과 인식을 포함하는 가정 내 육아문화의 진단이 필요함.
 - ◆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평등 가치관과 양육 분담 현황을 살핀 연구(최윤경·박은정·김보미·우석진, 2020)²⁾에서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가 양육 분담, 양육 참여,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과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고 하기도 함.
 - ◆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분명해 보여, 2020년²⁾ 육아 휴직의 경우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그 사용의향을 밝혀 5년 사이 3배 이상 높아졌으며, 2019년 육아휴직자 16만 명 중 아빠가 약 20% 정도로 10년 사이 16배 증가한 상황임.³⁾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진단 분석하여 부정적 요소를 줄여감으로써 육아존중문화로의 변화와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육아기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정 내에서 형성된 육아문화를 진단하고, 남성과 여성의 부-모간 역할 분담 및 인식 차이를 확인하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1)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1):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p. 118

2) 연합뉴스(2020. 1. 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 (2021. 4. 3. 인출)

3) 동아일보(2020. 12. 22.). “육아휴직 16만명 … 5명 중 1명은 ‘아빠’, 10년새 16배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2/104589790/1> (2021. 4. 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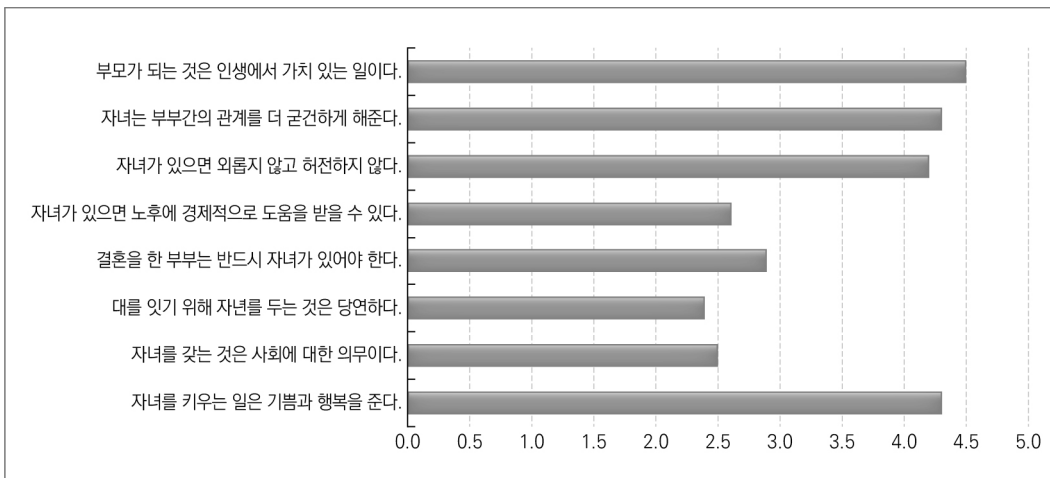
2 가정 내 육아문화 진단

- 전국에서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 대상으로 2021년 5월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 ◆ 가정의 육아문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 육아, 부부역할과 관련한 인식, 자녀양육 부담 및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양육 관련 갈등과 만족도 등을 조사함.

가. 자녀·육아·부부 역할에 대한 인식

-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
 - ◆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의미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4.5점)’,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4.3점)’,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4.3점)’, ‘자녀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다(4.2점)’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1〉 자녀를 두는 것의 의미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34. 〈표 V-1-2〉를 그림으로 재구성함.

- ◆ 이에 비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2.4점)’,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2.5점)’,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2.6점)’ 등 자녀의 도구적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지 않았음.
- ◆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지니는 도구적 개념보다는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 부모는 자녀를 위해 더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에의 동의 정도가 53%로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우 47%보다 다소 높았음.
- ◆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의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라는 부분에 동의 정도가 60.6%로 더 높았던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 54.9%가 동의 하였음. 이는 자녀양육을 아버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양육으로 인한 희생과 본인의 행복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됨.

〈표 1〉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단위: 명, %

구분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계(수)
전체	53.0	47.0	100.0 (1,228)
어머니	45.1	54.9	100.0 (603)
아버지	60.6	39.4	100.0 (625)
X ² (df)	29.724(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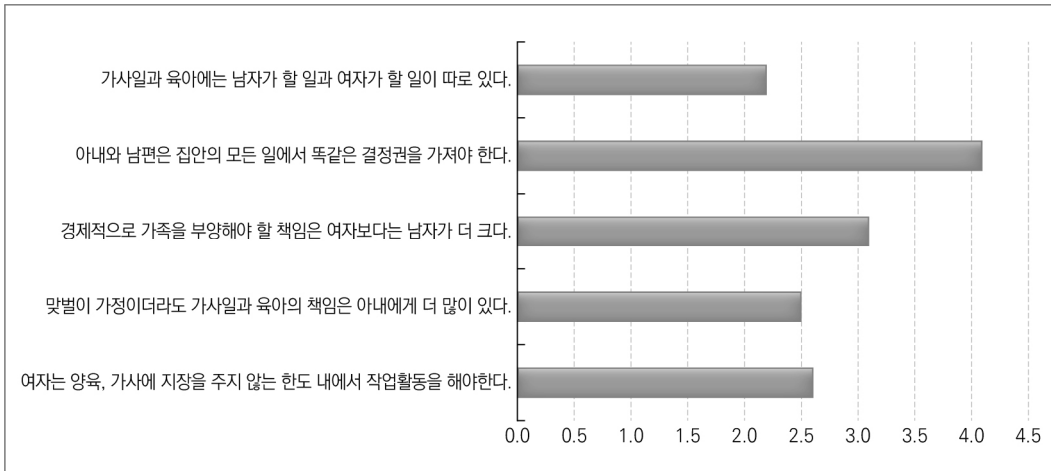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41. 〈표 V-1-10〉의 일부임.

■ 부부간 역할에의 인식

- ◆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에 4.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가사일과 육아에는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2.2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를 보여, 응답자들은 부부간 역할에 대해 대체로 성평등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부부간 역할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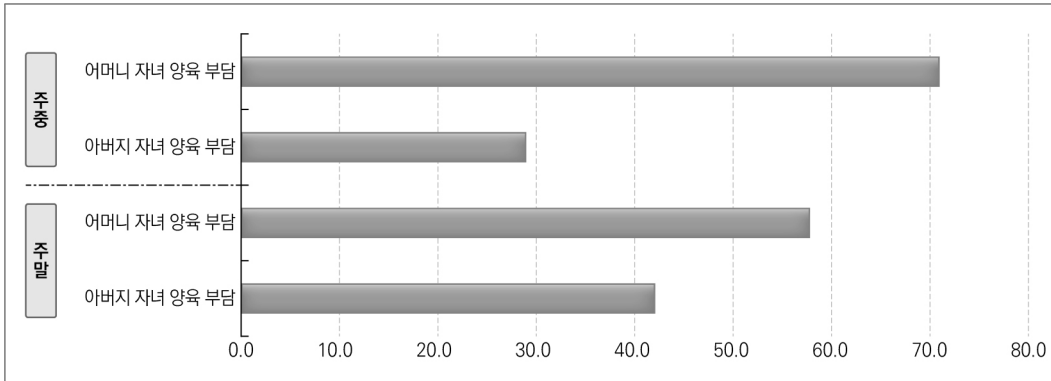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43. 〈표 V-1-11〉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나. 자녀양육 분담 및 아버지 양육 참여

■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 ◆ 자녀양육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주중에는 어머니의 양육 분담비율이 70.9%, 아버지는 29.1%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아버지의 양육 분담비율이 증가하여 어머니는 57.8%, 아버지는 42.2%로 조사됨.
- ◆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분담정도(24.1%)보다 아버지 스스로가 평가하는 본인의 분담정도(34%)가 유의하게 높다는 점임.
- ◆ 지역차이도 보여서 대도시 거주인 경우(31.1%)에 중소도시(28.1%)나 농어촌 지역 거주하는 경우(26.9%) 그 분담 정도가 높았고, 또한 맞벌이인 경우(34.1%)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23.7%)보다 분담의 비율이 높음.
- ◆ 이러한 부부의 양육 분담에 대해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 평균은 3.4점이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8.2%로 주류를 이룸.

〈그림 3〉 부부의 자녀양육 분담정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47. [그림 V-1-1]임.

■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내용

- ◆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놀이(4점)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기본생활습관의 형성(3.8점)과 자녀의 훈육과 생활지도 (3.7점) 등에 참여가 다른 부분보다 높게 나타남.

〈표 2〉 자녀 양육과정에 아버지 참여 내용(전체)

구분	평균(표준편차)	단위: %
1. 기본생활돌봄(먹이기, 입히기, 씻기)	3.8	(1.0)
2.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식사준비, 빨래, 청소)	3.5	(1.2)
3. 자녀와의 놀이 (함께 놀아주기, 놀이터 등 외출하기)	4.0	(0.8)
4. 자녀의 훈육 (생활지도)	3.7	(0.9)
5. 자녀의 학습지원	3.3	(1.0)
6. 자녀의 등하원	3.0	(1.3)

주: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5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51. 〈표 V-1-2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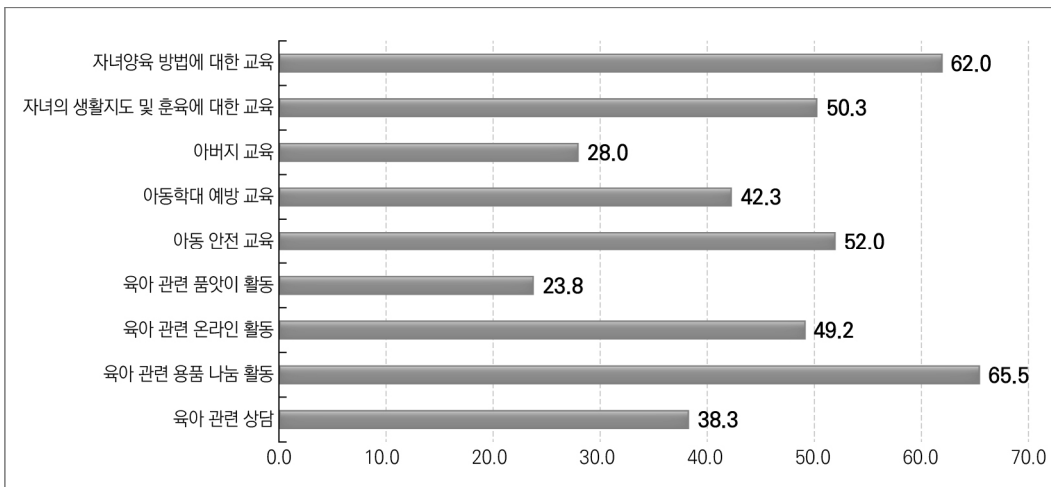
■ 육아관련 교육이나 활동 참여

- ◆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이수한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경험을 '있다' '없다'로 답하여 그 경향을 살펴봄.
- ◆ 교육 내용으로는 목욕이나 수유, 기저귀 같이 등 자녀를 양육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 안전교육 52%, 자녀의 생활지도 및 훈육에 대한 교육이 50.3%, 아동학대 예방교육 42.3%, 아버지 교육 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아버지 교육의 경우 응답자 전체 중 28%에 그치고 있어 다른 부모교육보다 아버지 교육경험이 적음을 보여줌.
- ◆ 양육관련 활동으로 육아관련 용품의 나눔 활동이 65.5%로 가장 많았는데, 육아용품의 나눔은 직장동료나 친구 등 지인과 나눔,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지역맘 카페, ○○마켓)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 지역맘 카페 활동 등 육아 관련 온라인 활동(49.2%)은 거의 응답자의 절반이 참여한 경험을 보였고, 언어발달, 자녀와의 관계 등 육아관련 상담(38.3%)이나 육아 관련 품앗이(돌봄이나 교육) 활동(23.8%)에 대한 참여는 그리 많지 않음.

〈그림 4〉 육아관련 교육이나 활동 참여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82. [그림 V-1-2]임.

다. 가정 내 양육환경 및 육아문화

- 가정 안에 형성된 육아관련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진단과 만족정도, 자녀와의 갈등 및 그 원인,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예의 어려움과 변화를 위한 요인 등을 살핌.

■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

- ◆ ‘우리 집은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4.1점)와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4.1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음.
- ◆ 그에 반해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3.3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를 보여 인식은 높으나 실제 실천은 그에 못 미침.
- ◆ ‘우리 집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3.7점)와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3.7점)에 대한 동의도 높은 편임.

〈표 3〉 가정 내 양육 환경 평가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1. 우리 집은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있다.	4.1 (1.0)
2.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1 (0.9)
3. 우리 집은 부부가 공평하게 양육을 한다.	3.3 (1.2)
4. 우리 집은 양육을 중심으로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3.7 (1.0)
5. 우리 부부는 양육자로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3.6 (1.0)
6. 양육하는 일에 대해 가족(확대가족 포함) 안에서 지지 받고 있다.	3.7 (1.0)
7. 긴급한 돌봄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조부모, 외조부모, 친척 등).	3.5 (1.3)
8. 힘들 때 양육 어려움이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5 (1.0)
9.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사람이 있다.	3.6 (0.9)
10. 때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4 (1.2)
11. 가정 내 공간은 양육하기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3.6 (0.9)

주: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62. 〈표 V-1-33〉임.

■ 가정 내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도

- ◆ 현재 가정 내 형성된 육아문화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3%이며, 전체 평균은 3.6점임.
- ◆ 영아자녀를 둔 경우(3.7점)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아버지의 만족도(3.8점)가 어머니(3.4점)보다 높았고, 맞벌이 가구(3.7점)에서 아닌 경우(3.5점)보다, 월평균 가구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현재 가정의 육아문화에 만족한다는 경향을 보임.

〈표 4〉 가정 내 육아문화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만족않음	별로 만족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	8.8	27.0	53.0	9.6	100.0 (1,228)	3.6 (0.8)
자녀 연령							
영아	1.0	8.2	24.2	52.8	13.8	100.0 (413)	3.7 (0.8)
유아	1.7	9.0	27.1	54.6	7.6	100.0 (410)	3.6 (0.8)
초등 저학년	2.0	9.1	29.9	51.6	7.4	100.0 (405)	3.5 (0.8)
F							4.6*
어머니	2.8	15.1	30.0	43.6	8.5	100.0 (603)	3.4 (0.9)
아버지	0.3	2.7	24.2	62.1	10.7	100.0 (625)	3.8 (0.7)
t							-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6.6	25.0	56.2	10.9	100.0 (635)	3.7 (0.8)
맞벌이 아님	1.9	11.0	29.1	49.5	8.4	100.0 (580)	3.5 (0.9)
t							3.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4	12.8	31.4	47.8	7.5	100.0 (226)	3.5 (0.8)
300~400만원	2.2	8.7	26.9	53.2	9.0	100.0 (312)	3.6 (0.9)
400~500만원	2.0	9.0	26.9	54.3	7.8	100.0 (245)	3.6 (0.8)
500~600만원	0.6	5.9	22.9	57.1	13.5	100.0 (170)	3.8 (0.8)
600만원 이상	1.8	7.3	26.2	53.5	11.3	100.0 (275)	3.7 (0.8)
F							3.1*

* $p < .05$, *** $p < .001$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71-172. 〈표 V-1-45〉임.

■ 자녀양육 관련 갈등 경험

- ◆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얼마나 자주 갈등을 경험하는 지에 대해 ‘월 1회 이내로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월 4회 이내 정도로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는 경우가 40.2%, ‘주당 3~5회 정도로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14.2%, ‘하루 한번 이상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3.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대체로 더 적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하는 경향을 보임.

- ◆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부 간 또는 가족 간 경험하게 되는 갈등의 원인으로서는 자녀 훈육(생활지도)이 주요 갈등이라는 응답이 50%로 절반에 달하였고, 다음은 부부간 양육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는 응답이 25.2%로 이 두 가지 원인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함.

〈표 5〉 자녀 양육 관련 갈등 경험

단위: %(명)

구분	매우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하루 한번 이상)	빈번하게 갈등을 경험한다 (주당 3~5회)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 (월 4회 이내)	거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 (월 1회 이내)	계(수)
전체	3.5	14.2	40.2	42.1	100.0 (1,215)
부모					
어머니	4.7	16.5	40.4	38.4	100.0 (594)
아버지	2.3	12.1	40.1	45.6	100.0 (621)
X ² (df)	13.216(3)**				

* $p < .05$, ** $p < .01$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73. 〈표 V-1-46〉임.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 ◆ 긍정적 육아문화는 자녀를 키우는데 부정적 요소들이 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육아문화를 의미함.
-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 또는 어려움은 부부 간 가치, 양육태도의 차이와 양육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남.
 -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0.1%,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27.2%, ‘부부/가족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15.6%,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15%, ‘육아 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2.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에 대해 연령대별 차이를 보여,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았고, ‘부부/가족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15.4%,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13.7% 등이 높은데 비해, 40~50대에서는 '부부/가족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34.6%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어린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돌봄을 위한 시간의 요구가 많고,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부부간 양육 철학 및 양육태도로 인한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와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자녀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라는 응답이 많았음.
- ◆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은 가구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맞벌이 가구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와 '부부/가족 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라는 응답의 비율이 아닌 경우보다 높았고,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는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부부/가족 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줌.

〈표 6〉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부부/가족 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부부/가족 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수)
전체	30.1	27.2	15.6	15.0	12.1	100.0 (1,215)
20~30대	26.8	28.9	15.4	15.3	13.7	100.0 (695)
40~50대	34.6	25.0	15.8	14.6	10.0	100.0 (520)
X ² (df)			11.184(4)*			
자녀 연령						
영아	23.4	30.5	15.1	14.6	16.3	100.0 (410)
유아	32.0	26.6	16.0	15.3	10.1	100.0 (406)
초등 저학년	35.1	24.6	15.5	15.0	9.8	100.0 (399)
X ² (df)			21.958(8)**			

구분	부부/가족 간 양육에 대한 철학 및 양육태도가 달라서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부부/가족 간 양육이 힘들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아서	부부/가족 간 양육분담 및 책임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로제)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0	27.6	13.5	17.3	13.5	100.0 (635)
맞벌이 아님	32.4	26.9	17.8	12.4	10.5	100.0 (580)
X ² (df)	12.615(4)*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177. <표 V-1-48>임.

라.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요구

■ 육아문화 변화 주체

- ◆ 육아를 둘러싼 문화인 육아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 하는지 질의한 결과, 양육자 개인이나 가족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23.2%, 직장과 기업 21.7%, 이웃과 지역사회 15.2%, 언론매체 1.8%의 응답을 보임.

<표 7> 육아문화 변화의 주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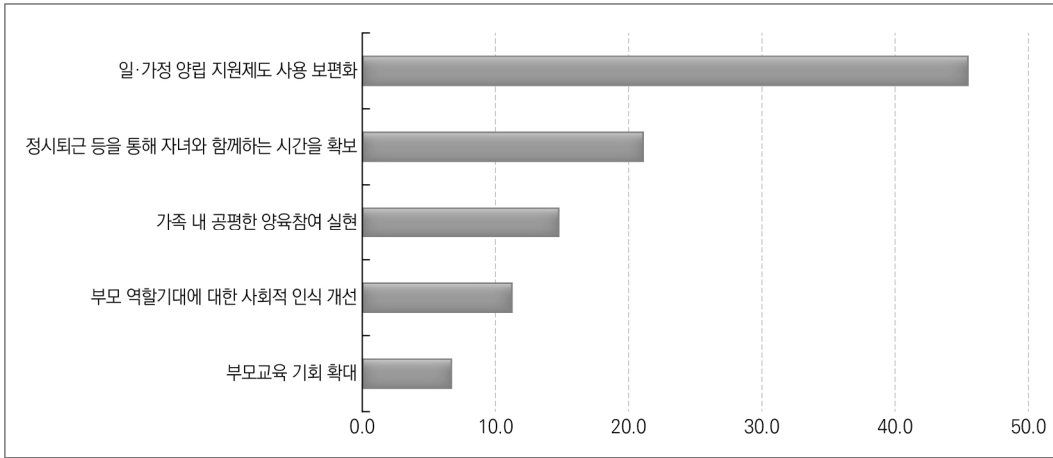
구분	양육자 개인, 가족	정부 (중앙, 지자체)	직장 기업	이웃/지역 사회	언론 매체	기타	계(수)
전체	37.9	23.2	21.7	15.2	1.8	0.2	100.0 (1,228)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09. <표 V-3-10>의 일부임.

■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

-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사용 보편화’가 45.5%,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가 21.1%로 높은 응답을 보임.

〈그림 5〉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11. 〈표 V-3-11〉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3 가정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가. 가정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 가정에서의 육아문화 양상과 문제점⁴⁾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인식은 점점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대체로 성평등한 가치관을 지니나 실제 양육 분담 등의 실행은 여전히 미진하다.’, ‘자녀/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지원에의 요구가 높다.’, ‘부모들은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희망한다.’, ‘맘 카페, 육아용품 지역 나눔 등의 육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으로 요약됨.
- 이를 중심으로 가정에서의 육아준중문화,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 〈표 8〉과 같이 제시함.

4) 영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1,228명 대상 설문조사결과와 심층면담 자료의 분석,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 워크숍 토의내용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결과임.

〈표 8〉 가정 내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가정 육아문화 양상 및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관련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 • 성평등한 가치관 지니나 실행은 미진 • 자녀/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애의 요구 • 자녀 양육역량 강화애의 요구 • 육아 중심 소통 다양화(맘카페, 지역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양육역량 강화 기회확대(아버지교육 등)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출처: 권미경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p. 249. 〈표 Ⅶ-1-1〉임.

나. 가정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 지속적인 문화 개선 홍보

- ◆ 긍정적 육아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것과 함께 육아하는 가구가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양육 부모가 체감하는 긍정 경험이 증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면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꾸준한 문화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함.
- ◆ 정부, 지자체, 기업, 미디어 등을 통한 육아존중문화 개선 홍보
 - 육아문화 홍보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접근을 요함.
 - 육아지원이 사회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홍보 캠페인으로 독려하고 있음.
 - 육아하는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아이 기르는 일’을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함.
 - 홍보 시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주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파악하여, 관련정보를 웹진이나 홈페이지 등에 계속해서 노출해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 추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안내할 것을 제안함.
-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Creators)’ 운영
 - 정부와 지자체, 또는 기업에서 긍정적 육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포터즈 집단으로

육아하는 부모들로 구성된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를 운영하는 안을 제안함.

-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는 양육자들이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토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위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여성가족부의 지역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 지역 ‘육아문화 크리에이터즈’의 선발과 운영이 가능하며, 지자체 별로 또는 경제계와 협력하여 ‘직종’별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 아버지 양육 역량강화 기회 확대

-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며 아버지의 역할이 확장되었고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한 역할에 맞춰 아버지들에게 필요한 육아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아버지 대상의 교육강좌, 부모교실을 개설할 것을 제안함.
- 현재 운영 중인 부모교육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초록우산 부모교육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기회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화시켜 일터인 직장으로 가서 제공하자는 것임.
- 또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한 아버지들의 양육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연계함.

◆ ‘아빠들의 놀이터’ 운영

- 덴마크의 ‘아빠들의 놀이터(Fars Legestue)’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아빠들의 놀이터는 육아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네트워크 형성의 공간으로 일주일에 한번 씩 구마다 마을도서관,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놀이터지기를 파견하여 3시간 정도 운영되는 형태로 이 때 간호사가 함께 파견되어 1시간 동안의 양육 상담도 지원함.

-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버지들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토요일에 자녀와 아버지가 모일 수 있는 ‘아빠들의 놀이터’를 마련하는 것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성 증진

- ◆ 육아기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의 요구가 높음.
 - 가정에서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20~30대에서는 ‘양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가정 내 육아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등) 사용 보편화’, ‘정시퇴근 등을 통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에의 요구가 높았음.
- ◆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용 증진
 - 일·가정양립제도는 제도는 마련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비롯하여 일·가정양립제도는 COVID 19 이후 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감염병 상황 대처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유연근무제 운영 모범사례 발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비용지원 유지 등을 제안함.

■ 양육역량 강화 기회확대

- ◆ 부모들은 양육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양육을 힘겹게 느껴 육아 길잡이, 놀이 방법 등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희망함.
 -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도 성장하며, 자녀와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도 힘을 얻음.

- ◆ 다양한 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기회 확대
 - 육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강의식 교육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강의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음.
 - 부모교육은 일방향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소규모 토론식, 양육 상담 등의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함.
 -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조부모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이 많아 부모교육 계획 시, 조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 마련

- ◆ 육아기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에의 요구
 - 육아하는 가족 간에 지역 내 육아용품의 나눔이 증가하고, 지역맘 카페 등 온라인 육아 관련 활동에의 참여가 활발함이 육아문화 양상 중 하나로 두드러짐.
- ◆ 온라인 네트워크가 긍정적 육아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온라인 공간이 육아정보의 교환이나 소통의 장으로서 큰 영향을 발휘함.
 - 자칫 편향된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음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복지로, 육아정책연구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육아관련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I 참고 문헌 I

- 권미경·김지현·김영민·박혜준 외(2021).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Ⅲ):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동아일보(2020. 12. 22.). “육아휴직 16만명…5명 중 1명은 ‘아빠’, 10년새 16배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2/104589790/1>
(2021. 4. 3. 인출)
- 연합뉴스(2020. 1. 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18400003> (2021. 4. 3. 인출)
- 최윤경·박은정·김보미·우석진(2020). 성인지 관점에서의 아동분야 돌봄경제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